

‘알디에이(RDA)승용마’ 방목 시작, 마음껏 초원을 달린다

- ‘제주마’ 기반으로 개발한 국산 승용마, 자연 방목으로 건강·복지 높여
- 국산 승용마 현장 활용 확대...생활 승마 대중화·산업적 가치 높일 것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알디에이(RDA)승용마’를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제주도 중산간 지역 난지축산연구센터 초지에 방목 사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디에이(RDA)승용마’는 농촌진흥청(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이 개발한 국산 승용마다. ‘제주마’의 강인한 체질과 ‘더러브렛’의 체형을 접목해 2009년부터 개량해 온 품종이다.

체고는 약 140cm(36개월령)이며, 성격이 온순하고 보행 능력이 안정적이라 어린이나 여성, 초보 승마인도 부담 없이 탈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방목으로 말의 건강 관리와 스트레스 완화 등 동물 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방목 사육한 말은 축사 사육한 말에 비해 넓은 초지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근골격이 발달하고 심폐 기능이 강화된다. 또한, 초지에서 신선한 풀을 섭취해 균형 잡힌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 방목 사육은 말의 기본 체력과 적응력을 높여 생활 승용마로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 ‘알디에이(RDA)승용마’ 활용 범위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일반 승마 체험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기마경찰대와 협력해 공공안전 분야에도 투입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병오년(말의 해)인 올해 국산 승용마를 향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현장 실증과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국산 승용마의 산업적 활용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 승마를 대중화하기 위해 국산 승용마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 김남영 센터장은 “올해 방목은 단순한 사육 관리를 넘어 국산 승용마의 가치를 국민에게 직접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온순한 국산 승용마를 육성하고 보급해 생활 승마 대중화와 국내 승마 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알디에이(RDA) 승용마 개요 및 사진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	책임자	센터장	김남영 (064-754-5701)
		담당자	연구사	최재영 (064-754-5708)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호**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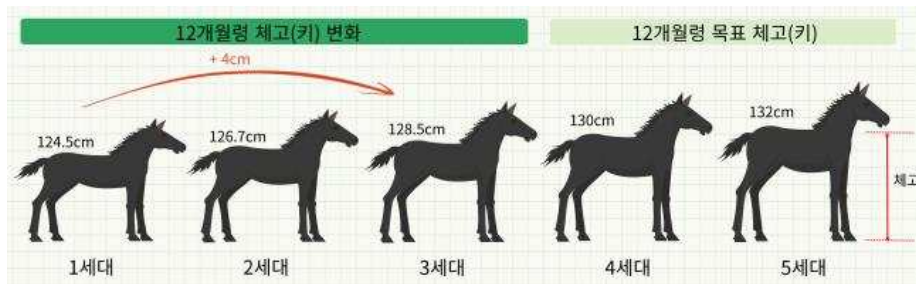
알디에이(RDA) 승용마 개요

□ 알디에이(RDA)승용마 육성 목표

- 품종 : 제주마×더러브렛
- 모색(털색) : 흑색 또는 흑백얼루기
- 개량 목표 : 체고 145~150cm(36개월령), 체장 체고 비율이 1대1인 장방형

□ 개요

- 승용마의 체고 개량을 위해 전통 육종 방법을 이용해 선발에 활용, 개선해 나가고 있음. 해마다 출생한 승용마의 체형을 12개월 단위로 측정해 성장 특성을 확인.
- 24개월령과 상관관계가 높은 12개월령 체형을 선발에 이용해 조기 선발 효과를 높이고 있음. 개발 중인 승용마의 1세대와 3세대 12개월령 체고와 체중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 3세대에서 1세대보다 체고(124.5cm→128.5cm)가 증가하고 있음.
 - * 12개월령 체고(cm): ('09, 1세대) 124.5 → ('15, 2세대) 126.7 → ('25, 3세대 현재) 128.5 → ('27, 4세대) 130 → ('33, 5세대) 132
- 승용마의 모색을 검은색으로 결정하는 데는 엠씨원알(MC1R) 유전자와 에이에스아이피(ASIP) 유전자 2가지가 관여함. ASIP 유전자는 2015년 100% 고정을 완료했음.
 - * MC1R 유전자형 빈도(%): ('09, 1세대) 21.8 → ('15, 2세대) 69.2 → ('25, 3세대 현재) 92 → ('27, 4세대) 100



['RDA승용마' 12개월령 체고(키) 개량 변화]

□ 2025년 알디에이(RDA) 승용마 방목 사진

2025년 RDA 승용마 방목 사진

